



1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2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종별양궁대회 개회식이 끝난 후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참가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초등부 이성윤·박별, 중등부 심유한·강선우 '金'

광주 양궁의 주역들과 미래 꿈나무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32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종별대회가 13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렸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초·중·고·대학·실업 16개 팀 200여명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 결과 20m, 25m, 30m, 35m 싱글라운드로 열린 초등부에서는 이성윤(영주초·1천355점)과 박별(유촌초·1천344점)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이태현(영주초·1천343점)과 김준서(문산초·1천317점)가 남초부 2, 3위를, 서예람(유촌초·1천310점)과 이설하(두암초·1천283점)가 여초부 2, 3위를 차지했다.

30m, 40m, 50m, 60m 싱글라운드로 치러진 남중부에서는 심유한(광주제중·1천377점)이 1위를, 박주혁(광주제중·1천365점), 이현서(광주제중·1천327점)가 2, 3위를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강선우(동명중·1천332점)가 1위를, 김성령(광주제중·1천309점), 전지현(광주제중·1천297점)이 각각 2, 3위에 자리하는 선전을 펼쳤다.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고등부·대학·실업팀 통합경기에서는 남자부 이승윤(남구청), 최민준(남구청)이 1, 2위를, 정다워(남구청)·진효성(조선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광주양궁의 새로운 미래를 보다'...제32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종별대회 성료

고등부·대학부·실업팀 통합전, 이승윤·기보배 우승



제32회 광주시양궁협회장배 종별대회 시상식에서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입상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자부 통합전에서는 기보배(광주시청), 이가영(광주시청)이 1, 2위를, 오예진(광주여대)·김민서(광주은행)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전국남녀 회장배 초등양궁대회와 10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

는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광주대표 선수들의 마지막 실전 감각을 점검하는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서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올림픽 3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소년체전 양궁 입상선수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 양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전 회장은 또 학교체육 발전과 꿈나무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소년체전 입상 선수(심유한·박주혁·김종연 이상 광주체육중, 김하진 윤리중)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32회를 맞은 광주시협 회장배 종별 양궁대회는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의 산실"이라며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은 광주 양궁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빛나는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국체전이 이 자리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들 모두 부단한 훈련과 자기관리를 통해 각자 목표로 하는 꿈을 꼭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청 김태효·강다슬, 100m 동반우승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김태효 '대회新'·강다슬 '첫 금'...올시즌 금빛 레이스시동

광주시청 김태효(30)와 강다슬(31)이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부 100m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는 13일 나주종합스포츠타코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28을 기록, 문해진(안양시청·10초42), 박민수(서울특별시청·10초50)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태효는 예선에서 10초62로 시동을 걸었고 준결승에서 10초53을 뛰어 결승에 올랐다.

김태효는 우승과 함께 대회 신기록도 달성했다. 이 대회 남자 100m 최고 기록은 제20회 대회에서 이재하(서천군청)가 세운 10초41로 김태효가 7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태효의 개인 최고기록은 2022 고

성동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세운 10초17이다.

한국신기록은 김국영이 가지고 있는 10초07이다. 김국영은 부상으로 재할증이어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강다슬은 여자 100m 결승에서 12초20을 기록, 강다정(안동시청·12초24)과 조은주(안산시청·12초25)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강다슬의 올시즌 첫 메달이다.

영남이 뒤쪽 근육 부상으로 올시즌 제대로 대회를 뛰지 않았던 강다슬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금빛 레이스시동을 걸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태효가 몸을 잘 만들면서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 대학부 경기처럼 뒷바라지가 불었다



13일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부 100m 동반 우승을 차지한 광주시청 강다슬과 김태효. (광주시청육상팀 제공)

면 10초1대도 될 수 있었을텐데 아쉽게 은메달이 붙으면서 조건이 좋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강다슬은 아직 재할단계가 남아있어서 최상의 몸상

태는 아닌데도 1위를 했다. 실전을 시작한 만큼 더 몸을 끌어올려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기자

손흥민, 스포츠 탈장 수술로 회복 훈련...페루전 불투명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가벼운 증세의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훈련에 들어가면서 페루와 평가전(16일 오후 8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3일 "손흥

민이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마친 뒤 현지에서 가벼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수술 받고 귀국했다"라며 "수술을 받은 지 2주 정도 돼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A매치 2연전 출전

은 지켜봐야 한다. 감독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전날부터 회복에 주력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탈장은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인 복벽이 약해지거나 구멍이 생기면 압력에 의해 내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 나오는 증세다.

손흥민은 12일 대표팀 소집 첫날 훈련에 이어 이날 치러진 이틀째 훈련에도 정상적으로 합류해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의 증세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페루전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25회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불링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곡성군청 김현미(왼쪽부터), 남부 개인종합 1위를 차지한 광양시청 가수형, 여자부 2인조 금메달을 합작한 고흥군청 강유라·이송원. (전남도체육회 제공)

곡성군청 김현미 '2관왕'

광양시청 가수형·고흥군청 강유라·이송원 '金'

곡성군청 김현미(35)가 제25회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불링대회 2관왕에 올랐다.

김현미는 지난 8일 경북 상주월드컵 불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개인전 예선에서 6위로 본선에 진출, 본선 8강과 준결승에서 박미란(평택시청), 이송원(고흥군청)을 꺾고 결승에 오른 김현미는 장하은(울산체육회)마저 11점차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현미는 마스터즈 경기에서도 12명의 선수들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현미의 활약에 힘입은 곡성군청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군청 강유라와 이송원은 여자부 2인조전 결승에서 김현자·신다는

(이상 서울시설공단)을 10점차(23-2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송원은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부에서는 광양시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광양시청 가수형(34)이 개인, 2인조, 3인조, 5인조 합계로 순위를 매기는 개인종합에서 합계 3천858점(평균241.1)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4, 은1, 동3개를 따내는 선전을 펼쳤다.

박종남 전남불링협회장은 "좋은 성적으로 전남체육을 빛낸 선수들의 투혼에 감사하다"며 "이 기세를 이어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전남불링의 빛나는 활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